

## 농흉의 치료에 있어서 폐쇄식 늑골절제 배농술의 효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이장훈·정태은·이동협·이정철·한승세

이행기(transitional phase)의 농흉은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못하면 만성 농흉으로 발전되어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저자들은 13례(남 11례, 여 2례)의 이행기 및 초기의 만성 농흉환자들에 있어서 폐쇄식 늑골절제 배농술(Closed rib resectional drainage)을 실시하여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농흉의 원인은 9례에서 폐렴, 2례에서 흉벽손상에 의한 응고혈액의 감염, 1례에서 담낭절제술 후의 합병증, 그리고 결핵성 늑막염의 치료중에 발생한 중복감염이 1례였다. 원인균은 단지 4례에서 배양이 되었는데 staphylococcus aureus, pseudomonas aeruginosa가 각각 2례였다. 초발증상은 흉통(8례)이 가장 많았으며, 증상 발현부터 수술까지의 기간은 7~35일( $21 \pm 9$ )였고 11례의 환자에서 입원 전부터 항생제 치료를 받아왔었다. 농흉의 위치는 좌측이 9례 우측이 4례였으며 크기는 매우 다양하였는데 흉부단층촬영에서 1~4개(평균 1.8개)의 국소화(loculation) 소견을 보였다. 수술 전에 흉강삼관술을 시행한 환자는 7례로 전례에서 배농이 잘 되지 않았으며, 이밖의 수술적응증으로는 흉강천자의 실패, 진한 농성물질, 두꺼운 농흉벽, 그리고 다발성 국소화였다. 수술시간은 평균  $92 \pm 27$ 분으로 짧았고 합병증은 지연 배농 3례, 그리고 창상감염 1례였다. 수술사망은 없었다. 슬후 흉관 거치기간은 4~18일( $10 \pm 5$ ), 슬후 재원기간은 7~24일( $12 \pm 6$ )이었다. 수술 수개월 후에 촬영한 흉부사진 소견상 12례에서 매우 양호, 그리고 1례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적 늑골절제 배농술은 수술이 간편하고 합병증이 적으며 효과는 매우 양호하여 이행기 및 초기의 만성 농흉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적절한 수술이라 하겠다.